

베스(bess) 선교사의 삶과 헌신을 기리며

기고

최용수

전 광주기독병원 원장



2024년 9월 3일, 광주기독병원은 한 여성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모 예배의 자리를 가졌다. 그녀는 바로 1961년부터 1985년까지 광주기독병원에서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사로 사역한, 한국명 이경자, 베스발레리아 브라더스 디트릭(Bessie Valeria Brothers Dietrick) 선교사이다. 필자는 2005년 광주기독병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하셨던 베스 선교사를 뵈 이후 병원 보직 자로서 메일과 만남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 남편인 디트릭 선교사께서 별세하신 후 양림동산 선교사 묘역에 안장하기 위해 유해를 모시고 온 베스 선교사를 다시 뵈었는데, 단아함과 강인함, 자애로움을 갖춘 그녀의 삶은 의료선교사인 남편의 단순한 동반자나 조력자의 역할을 넘어,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헌신적인 동역자의 모습이었다.

베스 선교사는 1927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생해 1949년 7월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인 디트릭 선교사와 결혼하였다. 결혼 후 1953년 남편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서 버지니아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인턴과정, 1954년부터 1958년까지 맥과이어 보훈병원 외과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남편은 1957년 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쳐갈 무렵에 미국 남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에 한국선교사로 신청해 1958년 선교사로 지명 받았다 당시에 큰 딸 페이스는 8살, 큰 아들 존은 6살이었다.

2024년 의료대란이 진행 중인 대한민국에서, 남편이 외과전문의 취득을 앞두고 아프리카 볼보지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고 한다면 두 자녀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1958년 11월 9일 편지에서 그녀는 “요즘 화물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신나고 럭셔리한 일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뱃집을 신기 위해 아홉 번이나 다른 항구에 기항해야 하는 여행을 30일 동안 하고나니 럭셔리하다는 것이 진절머리가 나는 중에 한국 해안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라고 표현하였다. 가족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베스 선교사는 그 순간을 기쁨으로 표현했지만, 당시 한국이 가진 많은 도전과 어려움도 느꼈을 것이다.

필자는 베스 선교사가 한 가정의 아내이고 어머니인 동시에 디트릭 선교사의 동역 선교사라고 생각한다. 베스 선교사는 광주기독병원의 외과 과장, 병원장, 의료부장으로 사역한 디트릭 선교사 부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녀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선교사역을 한 선교사이다. 그녀는 오전에는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교사로 사역하였으며 오후에는 광주기독병원으로 출근해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와 화이트크로스 재단에서 보내는 후원물품을 관리하면서 선교회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베스 선교사는 대학에서 현대 무용과 체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문화적 측면에서 광주의 젊은이들에게 미국 문화를 전달해주는 매체였다. 특히 베스 여사가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대학생을 위한 영어성경공부 시간에 광주의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영어를 통한 성경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아직까지 서양의 고전음악과 교회음악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던 청년들에게 고급 오디오를 통한 음악 감상도 또한 좋은 공부 가운데 하나였다.

1964년 그녀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미국에서의 우리 안식년 휴가가 끝났다는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가 안식년 휴가에서 돌아온 선교사들을 위한 광주제일

교회 환영예배에 참석했을 때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인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환영 예배는 아주 흐뭇했습니다. 두 어린 소녀가 이중창 특성을 부르는 동안에 베스는 커다란 쥐 한 마리가 앉아있는 장의자 밑에서 달려 나와 예배당 바닥을 가로질러서 강대상 밑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특히 설치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었듯이 그녀는 남은 예배시간 동안에 얄짤없이 그녀는 남은 예배시간 동안에 얄짤없이 앉아 있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요점은 예배당 안에 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고, 아직도 선교사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병원 업무, 가르치는 일, 물품 정리하는 일, 그리고 여러 유형의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로 바쁜 생활을 하지만 재미있다고 편지를 보낸다.

그녀의 삶은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역할을 했으며, 디트릭 선교사의 동역자로서 광주기독병원이 의사 수련병원, 종합병원으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녀는 1985년 미국에 홀로 계신 시아버지의 위독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귀국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광주에 있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광주를 방문하였고, 1993년에는 그녀의 헌신이 인정되어 광주시로부터 명예 시민증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2024년 8월 22일, 섬김의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을 마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베스 선교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베스 선교사의 삶은 단순한 선교사의 역할을 넘어, 지역 사회와 깊이 연결된 헌신의 역사였고, 그녀의 섬김과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도전을 준다. 베스 선교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 우리가 광주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社說

새미래민주당, 새 정치 위한 비전 내놔야

10일 광주서 ‘제2의 창당’ 선언

새로운미래에서 새미래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꾼 새민주당 지도부가 10일 광주를 찾아 민주세력 재편에 나서겠다는 제2의 창당을 선언했다. 새민주당은 김종민 의원이 지난 1일 탈당하면서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 지금은 군소정당의 하나지만 광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두번째 창당을 공식 선언한 새민주당이 거대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뜨리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비전을 내놓길 기대한다.

전병헌 새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대선 패배는 후보자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이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었다”면서 “당내 모든 역량을 모으고 민주당 안의 양심파, 조국혁신당, 애국적 시민세력과 함께 민주세력 재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재명 일국체제로 전락한 가짜 민주당을 대체할 진짜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일은 새민주당의 가장 큰 숙제’라고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세력이 재편되는 때가 오면, 범민주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민주당에서 성장하고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제 역할을 해 왔던 새민주당이 독자적인 길을 걷는 것은 분명 아쉬운 일이다. 이들이 탈당과 합당 등을 반복하며 이합집산하는 모습도 범민주 진영의 승리를 바라는 지역민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다. 반면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망가졌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지역민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횡보 하고 중도층이나 ‘지지 정당 없음’이라는 여론조사의 응답이 되레 늘어나는 것도 지금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다.

새민주당이 지금 정치권의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했던 포용과 희망의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범민주 진영을 분열로 내모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확장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전통과 가치, 정신도 지켜가야 한다. 변화와 혁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좋은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새민주당 또한 또 다른 이합집산일 뿐이다.

AI앰블런스 확대로 ‘응급실 뱅뱅이’ 막자

최적 이송병원 선정 등 도움

내년까지 광주에 이송 병원 선정, 환자 정보 제공을 돕는 인공지능(AI) 앰블런스 보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10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광주전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AI 앰블런스 적용 시범사업 기술 시연회가 9일 테크노파크에서 열렸다. 이날 테크노파크는 응급환자 발생에서 의료기관 이송까지 과정을 시연해 응급 의료 환경에 적용할 기술을 소개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지원하는 ‘K-Health 국민의료 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공모에 선정돼 AI 앰블런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광주소방본부 119구급차와 의료기관에 AI 시스템을 구축해 병원과 구급차 간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중증도 분류, 응급실 포화도 분석으로 최적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급차에서 이송 정보를 제공하면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미리 조회하고 치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구급차에는 영

상·음성 수집 장치가 탑재돼 구급대원들이 일지를 작성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소방청에서 지난 2월 전국 구급차에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인 스마트 119시스템과도 호환돼 전남 등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현재 구급차 38대 중 37대, 병원 응급실 50%가량에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내년까지 보급을 완료한다고 한다.

응급 환자가 이송될 병원 응급실을 찾지 못하거나 거부당하는 일명 ‘응급실 뱅뱅이’가 사회적 문제다. 이송 지연으로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다. 최근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응급실 뱅뱅이’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국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의정갈등으로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응급실만 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 ‘뚝뚝한’ 앰블런스가 내년까지 광주에 보급 확대된다면 응급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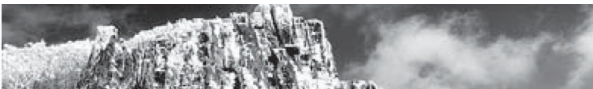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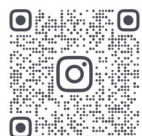


@jnli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전남일은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전남일보
E-Mail : jebo@jnlibo.com



상처를 입거나 동물에 의해 먹히면 성장을 멈추고 잠을 자는 산속의 영물(靈物)이 있다. 환경이 적합해질 때까지 몇 년이고 잠을 잔다. 짧게는 5년 길게는 24년까지 잔다.

예로부터 하늘이 점지해야 눈에 보인다는 영물인 산삼(山蔘) 이야기다. 산삼은 ‘산에서 나는 삼’이라는 뜻으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에서 백 년을 넘게 산다는 신령스러운 생물이다. 삼(蔘)은 생장 환경과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천종산삼(天種山蔘)’, ‘지종산삼(地種山蔘)’, ‘인종산삼(人種山蔘)’이 그것이다. ‘천종산삼’은 인위적인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발아해 3대 이상 자생한 산삼이다. 심마니들은 50년 이상 묵은 산삼을 천종산삼이라 부른다. ‘지종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새나 동물이 먹고 배설한 곳에서 발아해 생장한 산삼이다. 이를 ‘새가 배 속에 넣어 퍼트린 산삼’이라는 뜻으로 ‘조복삼(鳥腹蔘)’이라고도 한다. 인종산삼은 인간의 손을 거쳐 생장한 산삼이다.

세상에 명약으로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건을 꼽자면 아마 산삼만 한 게 없을 듯싶다. 이중 ‘천종산삼’은 하늘이 키운 산삼으로 발견하기도, 만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구전하는 이야기도 많다. 각종 설화에 죽을병을 고치는 기이한 약재로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재화를 상

정하는 산삼은 옛날부터 신비의 명약이라 불렸다.

천종산삼은 귀하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다. 작고한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산삼을 즐겨 먹기로 유명했다. 정 회장은 심마니가 좋은 산삼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직접 달려가 현금을 주고 그 자리에서 산삼을 씹어 먹었다고 한다. 이 회장도 산삼 구입을 담당하는 직원을 뒀다고 한다. 이 회장의 어록 중에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산삼은 종종 일반인들에게도 발견되지만 대부분은 심마니에 의해 발견된다. 심마니들은 산삼을 캐러 입산할때는 미리 길일을 정한다. 입산 전까지 개나 닭 등 살생을 금하며 네 다리 달린 짐승을 먹지도 않는다. 삼을 캘 때도 공을 들인다. 실오라기만 한 뿌리 1개라도 다치지 않게끔 캐야 한다. 다친 삼은 삼이 놀랐다고 해 ‘경삼(驚蔘)’이라고 부르며 그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천종산삼은 로또와 다름없다 보니 발견만 되면 전국적인 화젯거리다. 최근 건강을 위해 산을 자주 오르던 70대 남성이 순천시 모후산자락에서 천종산삼 13뿌리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감정가만 무려 7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인근인 지리산과 무등산 등에서도 종종 “심봤다~”가 울려 퍼지기도 한다. **김성수 논설위원**